

익산 미륵사지 '가마터 보호각' 새 단장

현대적이면서 단순한 모양으로 교체·화장실 등 편의시설 설치해 일반에 공개

익산시가 미륵사지 내 가마터 보호각을 새롭게 단장해 일반에 공개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정부혁신이자 적극 행정을 위한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사업의 일환으로 새롭게 단장된 모습은 3일부터 공개된다.

시는 그동안 색과 재질이 유적과 이질감이 있다는 의견을 반영해 기존 철 구조물을 이용해 현대적이면서 단순한 모양으로 교체했으며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 화장실도 설치했다.

새 단장한 보호각은 기존의 벽과 지붕을 없앤 후 진회색의 금속판으로 건물 전체를 감싸고 근처에 소나무를 심어 유적 경관과 조화를 이루게 했다. 이어 난간과 금속 창살은 커다란 투명 유리창으로 교체하고 전시 소개 안내판도 설치해 가마의 모습도 더 정확히 관찰할 수 있도록 했으며 가마의 보존을 위해 환기시설도 보완했다.

익산 미륵사는 백제 무왕 대(600~641년)에 창건되어 1600년대까지 유지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해당 가마터는 조선 시대 가와 가마터로 미륵사에서 가와를 자체 공급하기 위하여 만든 것으로 파악됐다.

가설 건물이던 기존 보호각을 한층 더 세련된 건축물로 새 단장한 만큼 유적과 자연스럽게 어울리진 모습과 함께 관람 편의시설 설치로 관광객들이 더 편리하게 문화재 관람을 할



익산시가 미륵사지 내 가마터 보호각을 새롭게 단장해 일반에 공개했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관람객들이 문화재를 더 편리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확충에 힘쓰겠다"며 "문화재 보호시설이 문화재 고유의 성

격을 유지하면서 관람에 도움이 되도록 디자인 구성에 반영하고 설치 등에도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익산=정양원 기자



전주대 박물관, '길 위의 인문학 사업' 8년 연속 선정

전주대 박물관(관장 김건우)은 '2021년 박물관 길 위의 인문학 사업'에 8년 연속 선정됐다

고 밝혔다. '박물관 길 위의 인문학'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최하고 한국박물관협회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청소년의 인문학적 창의력과 상상력을 증진시키고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박물관 창의 체험 교육 프로그램이다.

2021년 길 위의 인문학은 도내 초·중·고등 학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조물 조물 흙으로 만들고! 그리고!(고고학체험)', '민화의 모든 것(텀블러 만들기)', '바음새김(도장 만들기)' 등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모든 프로그램은 전액 무료다.

이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면

과 비대면 두 가지 방식으로 운영된다. 일부 체험 프로그램은 4차례 심화학습으로, 이외 프로그램은 자유학기제 등 유형별 맞춤 교육으로 진행된다. 전주대 박물관은 특수학교, 농촌학교 등 문화 소외지역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박물관'을 운영하여 참여 대상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방침이다.

박현수 학예연구관은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더 많은 학생들이 박물관 체험, 역사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대 박물관은 2013년부터 지속적인 국고지원 사업을 통해 전시·교육·조사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군산대 박물관, '전시공간 활성화 지원 공모 사업' 선정

군산대학교 박물관이 2021년 '전시공간 활성화 지원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지역과 함께 하는 열린 박물관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다지게 됐다.

2021년 전시공간 활성화 지원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후원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최하는 사업으로, 지원사업비는 총 180억원에 이른다.

이번 사업에는 105개의 전시공간이 지원했고, 그중 64개의 전시공간이 선정됐다.

특히 군산대학교 박물관은 박물관으로서뿐만 아니라 대학으로서도 유일하게 선정되어

더욱 의미가 있다.

군산대학교 박물관은 올해 새롭게 개관한 '박물관 갤러리 잇다'를 통해 매칭된 스튜디오제제의 '상상친구'전을 5월 중 진행할 예정이다. 지원사업비는 총 3,400만원이다.

이번 선정과 관련하여 정기문 박물관장은 "대학의 전문전시공간에 수준 높은 전시프로그램을 유치할 수 있어, 대학과 지역사회에 매우 뜻깊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지역과 함께하는 열린 대학박물관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기대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군산=남현룡 기자

코미디 국가대표 '옹알스' 공연 군산서 열린다

20일 군산예술의전당 대공연장서

군산예술의전당 2021년 첫 기획공연인 '옹알스'가 군산에 공연을 선보이며 유쾌한 웃음을 전할한다.

예술의전당은 올해 첫 기획공연으로 코미디 국가대표 '옹알스' 공연을 오는 20일 대공연장에서 오후 2시와 5시, 2회에 걸쳐 진행한다고 밝혔다.

옹알스는 지난 2007년을 시작으로 14년 동안 22개국 47개 도시를 투어하며 큰 호응을 이끈 작품으로, 말없이 진행되는 년별 퍼포먼스이며 베블링 코미디를 포함해 아가들의 장난감들을 재해석해 저글링, 마임, 비트 박스로 관객들에게 웃음을 안겨주는 퍼포먼스 코미디 공연이다.

특히 옹알스는 어려운 대사나 상황 설정이 없어 남녀노소 모두가 함께 웃고 즐길 수 있는 덕분에 젊은 층뿐만 아니라 가족 단위의 관객들까지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또한 관객들에게 편견과 상처 없는 따뜻한

웃음을 전하고 싶다는 옹알스는 지난 2019년 5월 배우 차인표가 감독을 맡아 제작한 옹알스의 다큐멘터리 영화 개봉으로 화제가 되기도 했다.

나이뿐 아니라 언어의 장벽까지 뛰어넘은 옹알스는 지난 2010년과 2011년에 개최한 에든버러 페스티벌에서 평점 5점 만점인 별 5개를 받아 실력을 입증했다. 또한, 2013년엔 상파울루, 웨이하이, 북경, 천진, 시드니 초청공연 등 전 세계에서 인기와 가능성을 인정 받았다.

황은미 예술의전당관리과장은 "2021년에 더욱 많이 웃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고자 올해 첫 기획공연으로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작품을 선택하였으며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정부 지원보다 강화된 객석 간 거리두기 시행과 철저한 공연장 방역수칙 준수에 만전을 기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옹알스'의 티켓예매는 티켓링크와 현장에 매 커피브라운(465-7730)에서 가능하며 R석



2만원 S석 1만원으로 오는 12일까지 20% 할인이 진행된다. /군산=남현룡 기자

군산교육문화회관, '동네책방 바로대출' 서비스 운영

군산교육문화회관(관장 김명희)은 지난 2일부터 이용자가 희망하는 도서를 가까운 지역 서점에서 빌려볼 수 있는 '동네책방 바로대출' 서비스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동네책방 바로대출' 서비스는 도서관 정회원이면 누구든 신청 가능하다.

이용 방법은 회관 홈페이지(<https://lib.jbe.go.kr/gec/index.do>)에서 원하는 도서와 서점을 선택한 뒤 회원증 지참한 후 해당 서점을 방문해 대출·반납하면 된다. 1인당 월 신청권수는 2권, 대출기간은 15일이며 연체회원은 이용

할 수 없다.

올해 군산교육문화회관과 업무협약을 맺은 지역서점은 총 4곳으로 한길문고, 예스서점, 그림책엔, 양우당서점이다.

군산교육문화회관 관계자는 "올해는 회관 대수선으로 인해 자료실 운영을 하지 않아 '동네책방 바로대출' 서비스를 통해 조금이나마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독서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될 계획이니 많은 이용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은성 기자

